

January 18 정욕 이기기, 예배자의 삶으로

- 시편 51편

정욕은 그대로 놔두면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. 정욕에 넘어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. 다윗이 뱃세바를 탐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그는 이미 많은 아내와 침을 둔 상태였습니다(삼하 5:13). 다윗은 죄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 앞에 깊이 참회하며 회개했고,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. 다윗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정욕을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,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.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기쁨과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

정욕은 피해야 합니다(창 39장). 사탄의 꼬임은 네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. 1단계, ‘누구나 하는 것이니까.’ 2단계, ‘작은 것이니까.’ 3단계, ‘아직 젊으니까.’ 4단계, ‘딱 한 번만.’ 사탄의 꿈에 걸리면 죄가 점점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. 그러므로 정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셉처럼 ‘피하는 것’, 즉 ‘달아나는 것’입니다. 정욕의 근처를 맴돌면서 정욕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.

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. 사람들은 하나님에 요셉과 함께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(창 39:2-3)? 요셉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.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.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, ‘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’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.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드러낼 때,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(마 10:32).

거룩한 일에 분주해야 합니다(갈 5:6-18). 영적 수준이 도덕적 수준을 결정합니다. 하나님을 섬기는 일, 하나님께 맡겨 주신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. 맡겨 주신 자녀, 배우자,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십시오. 죄짓지 않으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.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(벧전 3:6). 어디 서든지 ‘예배자’가 되십시오.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.

나는 예배자로서
살아가고 있습니까?

- ❶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까?
- ❷ 하나님을 불сты는 예배자로서 죄를 피하고 있습니까?